

광주 '야구의 거리' 주민 손으로 새롭게 탄생

2013년 임동 1.2km 구간 조성...콘텐츠 부실 유명무실 지적 스타 입간판·야구 승강장 등 야구역사 한눈에...내일 준공식 야구문화센터·게스트하우스 등 추진 대표 브랜드로 육성

야구 명문 해태와 KIA 타이거즈의 역사 살아 숨 쉬는 광주KIA챔피언스필드 주변 광주시 북구 임동 '야구의 거리'가 주민의 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임동 '야구의 거리'는 지난 2013년 조성됐지만 야구 관련 콘텐츠와 지역 정서를 담지 못해 '이름뿐'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동 주민들은 새롭게 조성된 '야구의 거리'가 낙후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북구와 함께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세운 주민들은 장기적으로 야구문화센터, 야구인 게스트하우스, 야구장 푸드타운 등을 조성해 임동 일대를 '야구 마을'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27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후 2시 광주-KIA챔피언스필드 인터뷰실에서 '타이거즈 전설이 되살아나는 야구의 거리' 준공식이 열린다.

챔피언스필드에서 서림초까지 1.2km 구간에 조성되는 '야구의 거리'에는 광주 야구의 태동과 발전, 영광의 순간, 스타의 발자취까지 야구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안내 조형물이 들어선다. 또 KIA 타이거즈, 야구공 등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버스 승강장 5개가 새롭게 조성됐다.

지역 야구의 산실인 광주일고·동성고·진흥고 및 서림초의 역사와 이들 학교 출신 스타 선수들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입간판도 설치될 예정이다. 주변에는 김응봉, 이순철, 한기주, 안치홍, 이강철, 장재근, 윤석민, 최희섭, 장성호, 이대진 등 타이거즈 출신 선수들의 핸드프린팅이 부착된다.

또 타이거즈 영광의 순간들을 담은 입간판과 타이거즈의 전설인 이종범 선수의 개인전시 공간 등도 마련된다. 한국 야구와 미국 메이저리그, 일본 야구의 역사를 담은 볼거리도 생긴다. 주변에는 김응봉, 이순철, 한기주, 안치홍, 이강철, 장재근, 윤석민, 최희섭, 장성호, 이대진 등 타이거즈 출신 선수들의 핸드프린팅이 부착된다.

새롭게 조성되는 '야구의 거리'는 지난해 주민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주민들은 지난해 광주시 시민참여예산공모에 선정돼 올해 5억원의 교부금을 받았다. 지난 3월부터는 '임동야구마을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전문가 초청 주민간담회, 선진지 견학, 주민 워크숍 등을 통해 사업 전 과정을 주도해왔다.

임동 주민들은 10년 장기 계획을 세워 '야구 마을'을 광주 대표 브랜드로 조성해간다는 목표다. 역대 프로야구 유니폼 체험 및 야구마을 스탬프 투어를 진행하고, 주변 공·폐가를 야구 관람객들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야구 박물관, 용품 가게 등으로 구성된 야구문화센터를 만들고, 치어리딩 클럽도 운영함으로써 지역문화를 형성·파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야구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푸드타운을 만들어 먹거리 상권을 조성하고,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베이스볼팝'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마을 내 주민들의 지속적인 결속력을 위해 동네야구단인 '임동 버드리안'을 창단하고, 버드리 야구마을 야구 문화 축제도 개최해 '주민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줄 생각이다.

예산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광주시에 신청한 내년 예산 5억원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이 끊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규재 위원장은 "주민, 구청, KIA구단 등과 함께 내년에도 연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 중"이라며 "광주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27일 오후 광주 북구 임동 광주-KIA챔피언스필드 인근에서 '야구의 거리' 조성을 위해 관계자들이 유명 야구스타의 입간판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다. '야구의 거리'는 광주-KIA챔피언스필드에서 임동 서림초등학교까지 1.2km 구간에 조성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하청업체에 18억대 리베이트 챙겨 대기업 협력업체 대표 등 2명 입건

하청업체로부터 18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대기업 협력업체 대표 등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순천경찰은 하청업체로부터 계약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여년 동안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로 대기업 외주 협력사 P사의 대표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중장비·운송·주유 업체 등 3개 하청업체로부터 계약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모두 18억3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P사는 이들 하청업체가 1년 단위로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약점을 이용해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아파트 시행 투자 미끼 13억원 챙겨 잠적

경찰, 법무법인 직원 추적

광주지역 한 법무법인 관계자가 '고수의 보장'을 미끼로 수십억원대 아파트 시행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아파트 시행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 13명으로부터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5000만원까지 총 13억원의 투자금을 챙겨 잠적했다.

A씨는 "아파트 시행에 투자하면 배당금으로 원금의 60%까지 보장해줄 것이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A씨가 수백명으로부터 100여억원을 끌어모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자신을 S법무법인 사무국장이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A씨의 직책이 사무국장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뒤를 쫓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밤 술 조심"

광주경찰, 내일 출근시간 숙취운전 일제단속

광주지방경찰청은 29일 아침 출근 시간대 광주 시내 전 지역에서 숙취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오전시간대 숙취상태의 운전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침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만큼 술이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자동차를 운전해서

는 안된다"며 음주운전 근절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주경찰은 지난달 17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은 특정 장소에서 30~40분 가량 이뤄진 뒤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이른바 스팟(Spot)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북구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중단하라"

시민단체협의회 "혈세 낭비 없어야" 시·의회에 촉구

특히 시비가 일고 있는 광주시 '북구 새마을회관' 건립 사업 시비 지원 논란(광주일보 12월26일자 6면)과 관련,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27일 "광주시와 시의회는 북구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고 "시가 북구 새마을회관을 새로 짓는데 5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며 "북구에 이어 다른 자치구에서도 새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예산 지원 결정은 박정희 우

상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의심받고 있고, 뚜렷한 성과도 없는 사업에 국가적으로 예산이 지원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든다"며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려는 관과 시의원, 관변단체의 이해관계가 작동, 특정단체에 과도한 지원을 서로 묵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자생적으로 활동해온 열악한 단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에 어긋난 '시혜성' 예산 지원을 전면 재검토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내년 예산안에 북구 새마을회관 건립비 5억원을 반영했다. 전체 예산은 12억5000만원으로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 새마을회 기부금 2억5000만원 등이다. 새마을회 안팎에서는 북구 소속 시의원들이 새마을회관 건립 비용 확보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이웃사촌 마을반장' 덕에...사경 해매던 독거노인 구조



○성탄절을 맞아 이웃의 안부를 살피던 '이웃사촌 마을반장'들이 집안에서 사경을 헤매던 독거노인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

○27일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상무2동 마을반장 홍상하(68)씨와 주대식(48)씨가 지난 25일 오후 영구임대아파트를 돌면서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살피던 중 집안에서 홀로 쓰러져 신음하고 있던 정모(76) 할머니를 발견, 심폐소생술을 하

고 119에 신고해 생명을 구했다는 것.

○기초생활수급자 등 형편이 곤란한 주민들이 밀집한 상무2동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촌 마을반장' 제도 덕분에 있었는데, 서구 관계자는 "상무2동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 상당수는 독거노인들이 아파도 신고해줄 분이 없다. 마음 따뜻한 주민 53명으로 운영된 마을반장이 주 1회 이상씩 문안을 살피고 있는데, 하늘이 도운 것 같다"고 설명.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계열 | 모집학과 | 모집인원 |
|----|-----------|------|
| 인문 | 신학과 | ○ |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 |
| 사회 | 사회복지상담학과 | ○○ |
| 사범 | 유아교육과 | ○ |
| 예능 | 음악학과 | ○ |
| | 실용음악학과 | ○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전영일정 • 원서접수 : 2016. 12. 31(토) ~ 2017. 1. 4(수)
• 전 형 일 : 2017. 1. 12(목)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 대학원 | 과정 | 모집학과 | 모집인원 | 전형일시 |
|---------|----|-----------------|------|----------------------|
| 신학대학원 | 석사 | 신학과(M.Div.) | ○○ | 2017. 2. 8(수) 오후 3시 |
| | 박사 | 목회학과(D.Min.) | ○ | 2017. 2. 8(수) 오전 10시 |
| 일반대학원 | 석사 | 신학과(Th.M.) | ○ | 2017. 2. 8(수) 오후 3시 |
| | | 유아교육학과(M.Ed.) | ○ | |
| 상담치료대학원 | 석사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 | |
| 사회복지대학원 | 석사 | 사회복지학과(M.S.W.) | ○○ | 2017. 2. 8(수) 오후 3시 |
| | | 평생교육학과(M.Ed.) | ○ | |
| 국제대학원 | 석사 | 한국어교원학과(M.A.) | ○○ | |
| 음악대학원 | 석사 | 음악학과(M.A.) | ○ | |
| | | 실용음악학과(M.A.) | ○ |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영일정 • 원서접수 : 2017. 1. 9(월) ~ 18(수)
• 전 형 일 : 2017. 1. 23(월)

학부 0621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